

# 온가족 떠나볼까 ... 역사를 느낀다, 가슴이 벅차다

**미리보는 광복 70주년  
6월 떠나는 역사 여행**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고 했다. 올해로 광복 70주년이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여름, 역사를 따라 길을 나서보자.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시간. 한국관광공사 ‘미리 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테마 하에 추천하는 6월 여행이다.



돌이 많고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여서 이름 붙여진 암태도.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소작쟁의가 일어난 신안 암태도에는 암태도소작인항쟁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한국관광공사제공〉

### ● 천안 독립기념관

안락한 쉼터서 독립의지 고취



독립기념관 4전시관에 위치한 3·1 운동 기념상

독립기념관은 일상의 삶과 친숙한 공간이다. 애국선열의 자주독립 의지를 고취하는 뜻깊은 유적인 동시에, 가족 여행객에게는 안락한 쉼터가 된다. 기념관에서 애국정신을 배우는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고, 신록이 우거진 숲길 코스에서 느긋하게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겨례의 집과 태극기 한마당 등이 독립기념관의 주요 상징이다. 7개 전시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국난 극복사와 각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등이 시기별로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을 에워싼 숲길은 시원한 산책 공간을 선사해준다.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 부재 전시공원 등 외부전시물 역시 인상적이다.

독립기념관 관람이 끝나면 병천순대거리로 알려진 아우내장터로 이동해 장터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다. 유관순열사사적지도 독립기념관과 연계해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구도심 미나릿길 골목 벽화마을은 천안의 추억을 되살리는 명소다. (문의: 독립기념관 041-560-0114)

### ● 경북독립운동기념관

義를 행한 안동 선비 만나다



독립유공자 1000명 이름이 새겨진 안동기념관길

안동 선비들에게 독립운동은 의를 행하는 유교 정신의 실천이었다. 그래서 안동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독립운동 유공자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 며느리, 손자까지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헌신한 집안이 많고, 가산을 정리한 뒤 만주로 망명해 독립군 양성에 이바지한 선비들도 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51년에 걸친 안동 지역의 항일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애국 계몽 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협동 학교의 옛 모습도 둘러볼 수 있다.

안동 임청각도 역사의 현장이다. 이상룡을 비롯해 독립운동 유공자 9명이 태어난 조선 중기의 고택이다.

유교문화박물관은 안동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뿌리가 된 유교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의미가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 이육사의 시비도 만나보자. (문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054-823-1555)

### ● 소작쟁의 현장 암태도

지주와 일제에 맞선 농민항쟁



암태도농민항쟁사적비와 서태석선생추모비

목포에서 서쪽으로 28.5km 떨어져 있는 섬. 전남 신안의 암태도는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소작쟁의이자 한국 농민운동사에 길이 남을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난 현장이다.

식민지 지주와 일제의 수탈에 맞서 강고한 단결력을 보여준 이들의 치열했던 역사와 승리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항쟁의 역사가 암태도 소작인항쟁 기념탑과 의사 서태석 선생 추모비, 암태도 농민항쟁사적비에 아로새겨졌다.

드넓은 논밭과 저수지가 펼쳐져 있어 섬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는 이곳은 어민보다 농업 인구가 훨씬 많다.

암태도 송공선착장에서 암태도 오도선착장까지 뱃길로 25분 거리. 바로 위의 자은도, 아래의 팔금도, 안좌도와 모두 연도교로 이어져 네 섬을 한꺼번에 여행할 수 있다. 자은도는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팔금도는 고려 시대 삼층석탑이, 안좌도는 김환기 화백의 생가가 유명하다. (문의: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061-240-8356)

### ● 합천 영상테마파크

영화·드라마서 본 역사 현장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는 증기기관차

역사와 영화가 만난다면? 아이들에게 더 속속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곳. 경남 합천에 자리한 영상테마파크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모습을 가능해볼 수 있는 촬영 세트장이다. 드라마 '각시탈' '경성 스캔들', 영화 '마이 웨이' '모던 보이'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고지전' '포화 속으로', 드라마 '전우'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역사 여행이 끝나면 자연으로 향하자. 합천 읍내를 가로지르는 황강은 합천의 젖줄이다. 황강을 중심으로 신라 시대 대야성이 있던 매봉산에는 연호사와 함벽루가 있고, 황강 건너편에는 정양농생태공원이 있어 수려한 강변과 높은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대장경테마파크는 세계유산인 해인사장경관전, 세계기록유산인 해인사대장경관과 제경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 해인사 소리길과 함께 꼭 들려야 할 곳이다. (문의: 합천군청 관광진흥과 055-930-4666)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천안독립기념관에는 다양한 전시물과 산책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나들이하기에 좋다. 사진은 독립기념관 전경.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